

“절제된 우리 춤으로 日 무대서도 신나게 즐기겠다”



광주예술고 3학년 남혜윤 양이 제3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무용부분에 참여해 ‘한영속류 태평무’를 선보이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무용 장원 광주예고 남혜윤양

담백한 동작이 좋아 ‘한영속류 태평무’ 선택 8월 나가노 국제무용대회 한국 대표로 출전

제32회 전주대사습놀이 최우수 국악원 전문문화관 일대에서 열렸다. 올해 열린 대회에서 학생 무용부분 장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차지한 광주예술고 3학년 남혜윤(19) 양은 지난해 3위에 그쳤던 아쉬움을 올해는 풀게 됐다고 밝게 웃었다. 남양은 고등학교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대회에서 수상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신나게 놀았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은 비결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이돌 가수의 노래와 안무를 한창 좋아할 나이지만 전통 무용 배우기에 여념이 없는 그녀에게 한국 무용의 매력을 묻자 ‘예술가다운’ 답을 건넸다.

“현대 무용은 드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처럼 활기찬 몸짓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한국 무용은 살얼음판 위를 걸을 때처럼 세심한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하죠. 바다가 정지된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듯이 절제된 행동으로 희로애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올해 대회는 전국대회와 학생대회로 진행됐으며, 학생부문은 판소리와 무용, 민요 등 10개 부문에 366명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선보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서도 5분 길이의 ‘한영속류 태평무’를 선보인 그녀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로 ‘정지함’을 꼽았다.

“전통 춤은 특정 류의 동작을 결정하면 전승돼 내려온 음악과 동작, 복식을 바꿀 수 없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죠. 울동이 크고 화려한 ‘강선영류 태평무’보다 담백하고 절제된 동작이 좀 더 한국적이고 저와 잘 맞는 것 같아 선보이게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무용을 시작한 남양은 중학생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무용인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인 그녀는 학교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연습실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무용에 몰두한다고 말했다. 덕분에 열한 살의 어린 나이에 참여한 제25회 광주시장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2006년)에서 초등부 1위를 차지했다. 2011년에는 목포국악제에 참가해 종합대상(과학기술포럼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오는 8월 일본 나가노 국제무용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장원이라는 결과보다 과정을 가지 있게 여기고 싶다는 남양은 초심을 잃지 않는 무용가로서 춤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무용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캠코 광주전남본부, 적십자에 헌혈증 전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봉)는 최근 3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헌혈봉사를 실시했다. 발급된 헌혈증서는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캠코 광주전남본부 제공>

밝은안과21, 혈액원 등과 사회공헌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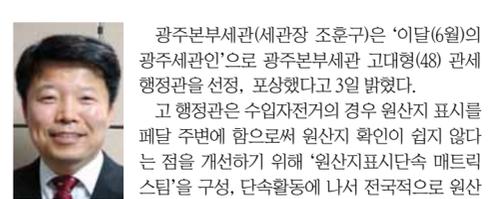
밝은안과21병원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사회공헌파트너십 협약식을 개최하고 사랑의 헌혈운동 등을 사업으로 약속했다. <밝은안과21병원 제공>

호남대,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봉사활동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학과장 신준영)는 최근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소장 김윤하) 개소 9주년 기념 아동성폭력 예방인형극이 열린 광주 5·18학생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고대형 관세행정관 ‘6월의 광주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규)은 ‘이달(6월)의 광주세관인’으로 광주본부세관 고대형(48) 관세행정관을 선정,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 행정관은 수입자전거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폐달 주변에 함으로써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산지표시단속 매트릭스 스탬프’를 구성, 단속활동에 나서 전국적으로 원산지 부적정하게 표시된 자전거 140여만대(1922억)를 적발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5월 관세청 특별단속 전체 실적의 94%를 차지하는 것이다. 적발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판독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곳으로 표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가수 현숙, 고희에 이동식 목욕차량 기증

‘효녀 가수’ 현숙이 고희를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식 목욕 차량을 기증했다. 고희군(군수 박병중)은 지난 2일 고희군청 광장에서 군정직원 등 50여명과 ‘목욕차량 전달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4000만 원가량의 목욕 차량을 매년 기증했으며, 고희군에 전달된 차량은 11번째 기증한 것이다. 현숙은 2년 전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고희를 찾았고, 이후 이 지역 노인정에 매년 1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인연을 맺어왔다. 그녀는 이날 자원봉사자들과 목욕 봉사에도 동참했다.

고흥군은 기증된 차량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현숙은 “최근 한 요양병원 화재로 어르신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내 어머니,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며 “오늘 목욕시켜 드린 분도 장애를 안고 홀로 사시는 70대 어르신인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된 어르신들은 목욕 후 옷을 입혀 드리면 아이처럼 웃으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고흥=주각기자 gju@kwangju.co.kr

신문 읽고 감상문 써보세요

신문협회, 초·중·고생 공모전

한국신문협회(회장 송병호)는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신문 읽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문기사를 가독, 내방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눈 뒤 1200자 이내로 감상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응모하거나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감상문과 함께 우편으로 내면 된다.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10월 중순 수상자를 발표한다. 우수작은 개인 부문 30만 원, 단체 부문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열릴 방침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고성춘·박공신씨 장남 영진군 안병희·정순이씨 차녀 윤경양=피로연 4일(금) 오후 5시 30분 S타워컨벤션 4층. 13일(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연구공원 1층 본관 웨딩홀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월례회=5일(토)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학교법인 유은학원 총동문회(회장 전주인) 2014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8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 능성동 아페스타웨딩홀 062-361-2680.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이화회(회장 이승봉) 월례회의=8일(화) 오후 6시 30분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문화 류씨하정공파 광주중친회(회장 류재균)=10일(목) 오후 6시 30분 산천애장여 062-651-2885.

▲경주 배씨 광주중친회 월례회=10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대인동 민어회집 010-9601-5423.

알림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지난 1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제4회 한국의 풍류 공연에서 양주풍류악회 가 수제전을 연주하고 있다

‘한국의 풍류’ 공연 세계 진출 앞두고 국내 첫 무대

크라운-해태제과·양주풍류악회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매년 일본에서 열렸던 ‘한국의 풍류’ 공연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렸다. 크라운-해태제과(회장 윤영달)와 양주풍류악회(회장 김정수)가 준비한 이번 공연은 소리의 본 고장인 전주와 광주에서 지난 1~2일 각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언지홀과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한국의 풍류”는 K-POP에 친숙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악의 뿌리인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세 차례 펼쳐졌다.

크라운-해태제과와 양주풍류악회는 ‘한국의 풍류’ 공연을 통해 역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크라운-해태제과와 양주풍류악회는 세 차례 일본공연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

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 더 많은 해외 여러 나라의 도시를 직접 찾아 우리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계획이다.

‘제4회 한국의 풍류’ 공연 무대에는 국보급 인간문화재인 최충용 명인(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후보)을 비롯해, 이춘희 명창, 김수연 명창 등 국악계의 거목들이 참여했으며,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황준연 단장과 국악평론가 윤종강 씨가 해설 및 사화를 맡았다.

양주풍류악회 소속 국악 명인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궁중무용의 반주음악인 합주곡 ‘수제전’을 연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거칠고 투박한 남성적인 소리 속에 화려한 멋을 담은 ‘거문고산조’와 이춘희 명인의 심금을 울리는 ‘이별가’를 선보였다.

크라운-해태제과 윤영달 회장은 “우리 국악이 이제 더 큰 세계로 나가기 앞서 국민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 무대였다”며 “수준 높은 우리 전통문화를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

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심청제가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 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농성문화의 집=성인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미술미로·

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 8000원. 061-332-8991~2.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안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요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 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부음

▲양영찬씨 별세 누리·미리씨 부친상=발인 4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이금자씨 별세 주주현·송옥씨 모친상=발인 4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김희경씨 별세 김정희·영신·영옥·영숙씨 모친상=발인 4일(금)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p>謹 201호故차복순 님(여/76세)</p> <p>女/婿 : 서영의/김양호, 서영의 外/孫 : 김유진,김동민 ● 발 인 : 7월 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p>		<p>301호故이순자 님(여/69세)</p> <p>子 : 임종근 夫君 : 임방수 女/婿 : 임미영/윤애숙, 임미정/김남석, 임경아/이성관 ● 발 인 : 7월 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2</p>	
<p>401호故전삼례 님(여/80세)</p> <p>子/子婦 : 박광호/백선자 女/婿 : 박영미/박중용 夫君 : 박재복 ● 발 인 : 7월 5일 ● 장 지 : 녹동마을 선영 ● 연락처 : 227-4383</p>		<p>102호故계정선 님(여/67세)</p> <p>子/子婦 : 정영석/이순희, 정명환/김나영 女 : 정애령 夫君 : 정철우 ● 발 인 : 7월 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p>	
<p>孝 金 浩 宗 禮 式 堂 http://www.mykumho.com</p>			